

어김없는 '진흙탕 싸움' 얼룩진 지방선거

광주·전남 전역서 고소·고발·성추행 공방 난무 낮 뜨거운 '자라탕' 마저 등장... 정치 불신만 가중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광주·전남 6·13지방선거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곳곳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고, 가짜뉴스·성추행 공방·금품살포 의혹 등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네거티브'에 정치불신만 커지고 있다.

여수에서는 시장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권세도 후보와 무소속 권오봉 후보 간 난타전이 한창이다.

권오봉 후보는 최근 '권세도 후보가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권오봉 후보가 광양경제정장 시절 직원들과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등 부실행정을 한 것처럼 교묘하게 날조하고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권세도 후보도 즉각 '권오봉 후보가 광양경제정장 재직 시 부실행정으로 지적받은 내용은 '국무총리실 보도자료와 지역방송 등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며 '무고'로 맞박았다.

장성에서는 윤시석 민주당 후보가 최근 불거진 성추행 의혹과 관련, 무소속 유두석 후보를 6일 허위사실 유포로 장성군선관위와 장성경찰서에 고발했

다.

윤 후보는 "유 후보 측이 (자신) 여성 선거운동원을 매수해 제보자로 내세워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는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량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여성은 지난 5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후보가 지난해 장성군수 재직 당시 한 주민자치위원 모임에 참석해 허벅지를 만졌고, 지인 여성에게 귓속말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곧바로 "악의적인 미투 공작"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순천에서는 '마약 커피' 의혹으로 선거판이 얼룩지고 있다.

순천무소속 순천시장 후보는 지난 5일 "4년 전 순천시장 선거 당시 마약커피 의혹사건은 허석 민주당 후보가 설계한 기획정치테러"라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고, 허 후보 측은 "상식을 벗어난 네거티브"라며 맞박았다.

화순에서는 소위 '자라탕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화순 출마자들이 공식 선거군



“꼭 투표하세요”

광주에서 유일한 초등학교 여자축구부인 하남중앙초등학교 선수들이 6일 오전 광주시 월곡동 산정공원에서 '투표하고 월드컵 응원하자'며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태규 기자

동일 전인 지난달 30일 한데 모여 '자라탕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선관위는 5일 불법성 여부 판단 등을 위해 광주 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를 두고 평화당은 잇따라 논평을 내고 "화순 지방선거 후보와 지역인사 수십명이 자라탕 파티를 벌이다 발각됐다"며 "이는 '호남관 제2의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선거판 단골인 성추행·성희롱 공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불거졌다.

광양에서는 최근 한 승려가 SNS에 무소속 정현복 후보와 관련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 후보와 맞상대인 민주당 김재무 후보 간 불륜사나운 공방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담양에서도 한 인터넷매체 여기자가

지난 2013년 지역행사장에서 무소속 정정철 후보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최근 전 후보를 고소하자, 전 후보는 해당 기자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사를 공식선거법 위반과 무고죄, 후보자 비방으로 각각 맞고소했다.

가짜뉴스 의혹과 비방도 빠지지 않아 나주에서는 강인규 민주당 후보의 '나주 강인규의 양심, 군번도용 월급사취'

라는 제목의 기사를 두고 진위공방이 일고 있고, 고흥에서는 전직 수협장과 군의원들의 지지선언을 두고 민주당과 평화당 후보 간 비방전이 한창이다.

이밖에도 여수에서는 민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평화당은 검찰 고발 등 사법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며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정근산 기자

갯조개 자원 회복 프로젝트 '도전'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종자방류·양식기술 개발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갯조개 자원회복을 위해 종자방류에 이어 양식기술 개발에도 도전한다.

6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갯조개 생산량은 1,361t으로 전국 생산량의 28%를 차지했다.

소득액도 143억원을 기록해 효자 품종으로 떠올랐지만, 어획량 증가와

바다환경 변화 등으로 바다자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수요량은 늘어 1마리(600~1,000g)에 1만8,000원을 호가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15년 교미·채란·부화 등 과정을 관리해 종자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지금까지 전남해역에 7만2,000마리를

방류했다. 올해에도 어미 190마리를 통해 확보한 종자 4만마리를 다음달 방류하기로 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초기먹이 개발 연구도 병행해 그동안 불가능했던 갯조개 양식에도 도전할 예정이다.

최연수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갯조개는 서남해안에서 4~6월에 주로 잡히는 어종으로 식감이 좋고 담백한 고급 횡감"이라며 "갯조개뿐 아니라 낙지·백합·보리새우 등 경제성 있는 고소득 품종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종자방류량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남북관계 개선되면 DMZ 유해발굴 추진”

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애국가·의인 삶 존경심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DMZ)의 유해발굴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미군 등 해외 참전용사들의 유해도 함께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인과 경찰의 유해발굴도 마지막 분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공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유가족과 유족이 자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그분들의 삶이 짧은 세대 마음속에 진심으로 전해져야 하며, 후손이 선대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애국자와 의인의 삶에 존경심을 가지도록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애국과 보훈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국민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이 되고 미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는 우리 이웃과 가족이 평범한 하루를 살며 만들어온 역사이다.

일제치하 암장서 독립만세를 외친 것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간 것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거리에 나선 것도 모두 평범한 우리 이웃, 보통의 국민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희생된 대부분의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었다. 이 곳 대전현충원은 바로 그분들을 모신 곳”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언제든 국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이며 이웃을 위한 희생이 가치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기본”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애국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훈을 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 아끼는 마음을 일궈낸 대한민국의 모든 이웃과 가족에 대해 큰 긍지를 느낀다”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애국영웅과 의인·민주열사의 뜻을 기리고, 가족의 슬픔과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보듬을 수 있게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장휘국을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대한민국대표 진보교육감 광주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광주교육에 투자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 장휘국 후원회장 김선우 배서

농협 355-0056-5927-73 광주광역시교육감후보자 장휘국후원회

후원문의 전화 062-529-9802 | 팩스 062-529-9807 | 이메일 hongm12@daum.net
이 신문광고는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것입니다.

북미정상회담, '12일 오전 10시 카펠라'

마리나베이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재연 가능성도

세기의 만남으로 주목받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가 모두 확정되면서 북미간의 실무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첫 회담은 현지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이뤄진다.

카펠라 호텔은 회담장으로 낙점된 배경에는 북미정상의 경호와 보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호텔은 있는 센토사 섬은 넓이

4.71㎢의 연륙도로 싱가포르 본섬과 연결된 다리와 모노레일, 케이블카만 끊으면 외부에서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해상을 통한 접근 가능성도 고려한 듯 지난 5일 관보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센토사 섬은 물론 섬 크기와 맞먹는 인근해역도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보안과 경호를 위해 섬을 둘러싼 바다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회담은 오전에는 수행원을 배제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회담이, 오후에는 확대회담을 진행하는 방

식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이 사이 두 정상에 오찬을 함께 나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깜짝 이벤트'는 정상간 유대와 신뢰구축뿐만 아니라 회담의 전반적 분위기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지 외교가에선 회담의 세부일정에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4·27 남북정상회담 때 선보였던 '도보다리' 산책과 같은 색다른 장면이 연출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일각에선 카펠라 호텔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해변을 두 정상이 함께 걸으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인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공언해온 대로 '햄버거 오찬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